

나비아 청산 가자

함평 나비축제-완도 청산도 걷기 축제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건강의 섬’ 완도군과 ‘생태관광의 메카’ 함평군이 손을 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김종식 완도군수(오른쪽)와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 20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광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완도군이 매년 4월에 청산도의 유채꽃과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앞두고 함평군에 제안

해 성사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는 함평을 대표하는 축제인 ‘함평 나비대축제’와 완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연계해 상호간 동반성장의 발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의 공식행사(4월 14일)인 느림의 종 타종식때 ‘나비아 청산가자’라는 주제로 우호 협력 관계를 천명한 나비 날리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2012 함평

나비축제’를 홍보하고 청산도 걷기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축제기간 동안 홍보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대표축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축제간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호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함평과 완도



를 대표하는 ‘나비’와 ‘청산도’를 연계하는 관광협약을 통해 두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유치 및 여행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양군의 협력체계

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등 전남권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함평나비축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된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황은학기자 ejchung@

‘예술의 섬’ 안좌도 관광명소 조성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 맞아 다도해 명소화사업 연계

한국 근대회화의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의 고향인 신안군 안좌도가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도해 명소화사업과 연계해 26~27일 예술인과 인문인을 대상으로 ‘아트 아일랜드 안좌도 찾아가기’ 여행을 추진한다.

이번 여행은 3단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예술의 길(Art Street Tour)’로 수화 김환기의 생가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생전의 그림을 본뜬 벽화거리를 탐방한다.

2단계는 ‘천사의 다리 걷기(Angel Bridge Eco Step)’로 박지도와 반월도를 잇는 목교시설인 천사의 다리를

걸으면서 갯벌을 만끽하며 생태 발자국도 남기는 행사다.

3단계는 ‘조복옹단 생태체험’으로 광활한 갯벌 위에 펼쳐진 감태밭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감태 채취와 갯벌체험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가 이뤄진다.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돈들이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여행 ▲즐겁게 섬 문화를 배우는 여행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을 지향하는 관광사업이다.

특정 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섬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도 창출하고 20년 후 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

록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안좌도를 전국 최초로 ‘예술의 섬’으로 가꾸고 있다.

이를 위해 김환기 화백 생가를 중심으로 고향마을인 읍동리 치동저수지 인근에 130여원을 투자해 ‘김환기 미술관’을 건립 중이며, 인근에 문화창작 쉼터, 야외무대, 환기 그림정원 등 ‘김환기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김환기 화백은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제1세대로 한국적 정서를 양식화한 예술세계를 확립했으며, 한국 근대회화의 추상적 방향을 연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평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응

월 2회 임신부 진료

함평군이 특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지역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함평군보건소는 전남도,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해 매월 2회씩(둘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임신부를 찾아가 진료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함평 지역 임신부들은 관내에 임신부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목포나 나주, 영광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특수 이

동진료 차량의 경우 임신 40주까지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기본검사와 초음파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등 일반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군 보건소는 농촌 지역에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통역서비스 요원을 배치해 진료와 건강상담을 돕고 있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보니 임신부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관내 임신부들의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학기자 hwang@

목포 축제에 거는 기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시는 해양문화 축제와 관련,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했다. 총 200여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돼 당초 의도한 <서부취재본부 기자>



임영춘

목포시는 연초부터 관광객 700만명 유치라는 당찬 목표를 선언한데 이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의 4개 분야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목포의 각종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관광기획과의 변화와

제다.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 ‘축제는 있지만 독특한 해양문화가 없다’는 것과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생산성 부분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정체성과 생산성을 담보하는 데 눈을 돌릴 시기다. 일례로 종교적 이유를 들어 거부돼

온 ‘풍어제’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관광 문화특구’가 지정된 때 있었을 뿐 지금까지 이렇다 할 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변형해

야 한다. 둘째길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는 고뇌에 찬 시 관광기획과에 갈채를 보내면서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을 기대한다.

lyc@kwangju.co.kr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해상 국립공원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해를 ‘해양자원 훼손예방의 해’로 지정하고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근 해상 국립공원내에서 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보호지역 출입행

위 ▲춘란·하수오 등 야생식물 채취 ▲오물투기·동물 밀반출·동물 포획 등으로 분석됐다.

서부사무소는 올해 섬지역 해안가 일대에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식물 채취 및 동물 포획, 동물 밀반출 등 자원 훼손행위와 더불어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지니고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전북

‘울외’ 군산 명품브랜드로 만든다

10억 들여 특화작목 육성

군산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울외’(일명명 나라즈게)가 특화작목으로 육성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울외’를 군산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도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산 명품 울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3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 추진된다.

시는 군산시 울외재배 농가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특성화사업 추진단과 울외 생산자협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우수 농산물의 전략적 특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추산지역의 토양환경 개선과 브랜드까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과 채소 중의 하나인

‘울외’는 동아와 참외의 중간형태의 크기를 가지며 주로 장아찌를 담는 재료로 재배된다.

지금부터 80여년전 전국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청주 공장이 위치한 군산에서 술찌게미인 주박을 이용한 장아찌의 제조기술이 전통방식 그대로 전해져 현재는 군산에서만 20여개 가공식품회사에서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다.

군산의 ‘울외 장아찌’는 고유의 맛과 향이 우수하여 미식가들로부터 밀반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이 군산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21일 남원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광한루 등 관광명소를 견학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 수학여행 일번지 급부상

올 봄 고교생·대학생 6만여명 방문 예상... 숙박업체 웃음꽃

국악·전통테마 상품 인기

남원이 전국 수학여행 일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대구대와 목포대를 비롯해 80여개 학교 2만여명의 대학생이 다녀갔다. 또

여수 월광고등학교 외 69개 학교 수학여행단 3만2,000여명이 숙박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조트와 수련원을 포함하면 모두 6만여명에 이른다. 올 봄철에 6만여명의 대학생들이 MT와 오리엔테이션, 수학여행, 수련캠프 등으로 남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학여행단의 남원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국악과 전통을 테마로 하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인

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남원 중앙하이츠 콘도에 숙박한 서울 휘문중학교 수학여행단 450여명은 전통문화와 국악이 함께 하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남원의 전통문화를 소개받고 “우수한 남원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꼭 다시 한번 찾고 싶다고 밝혔다.

또 22일과 23일에는 서울지역 교장단 70여명이 남원을 방문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국악 따라하기, 민요배우기 등을 체험 할 계획이

다. 시는 올들어 대학생 MT와 수학여행, 수련캠프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테마상품 개발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에 발맞춰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남원만의 전통문화와 주제가 있는 다양한 2박3일 상품개발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공급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학여행 전담창구 운영, 수학여행 설명회, 서한문 발송 등 한발 앞선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다.

장주호 시 문화관광 과장은 “수학여행단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 체류연수관광의 중요한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국악 외에도 댄스, 코믹, 과학 등 버라이어티 공연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단신

군산시보건소, 건강지킴이 스마트북 발간

군산시보건소(소장 이재문)는 시민들에게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건강지킴이 스마트북’(이하 스마트북)을 발간했다.

‘스마트북’은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민원업무 안내, 의료비지원 안내 등을 대상자별, 분과별로 분

류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보건소 측은 ‘스마트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보건기관은 물론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익산시는 21일부터 삼기·낭산면에 조성중인 익산 일반산단~연부IC(총연장 12km)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3개월에 걸쳐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달 중순에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1808억원을 투입, 2014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보상 협의를 마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경찰서, 지역치안협 정기회의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최근 김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지휘부와 이견식 김제시장, 김제시의장 등 20명 위원과 40여명의 시민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김

제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학교폭력담당 전담 경찰관을 구성했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관계기관과 공동생산을 통해 민·관·경이 서로 협력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김제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한국연극협회 정읍시지부 창립

한국연극협회 정읍시지부가 지난 20일 창립됐다.

초대회장에는 30년의 연극경력으로 전주 우듬지 소극장에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하고, 정읍지역 연극예술 발전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정찬호 지부장이 맡게 됐다.

정찬호 초대 지부장은 “정읍에 총 산하 소속 지부로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